

식품산업 연계 청년 일자리 모델 개발

익산시, 노사발전재단과 일자리 컨설팅 지원 협약 체결

익산시(시장 정현율)가 고용노동부·노사발전재단이 주관한 '노사상생형 지역일자리 컨설팅 지원사업'에 선정돼 국가식품클러스터와 연계한 청년일자리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컨설팅 지원을 받게 됐다. 시는 23일 시청 상공실에서 노사발

전재단과 '노사상생형 지역일자리 컨설팅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정현율 시장, 이정식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 조규대 익산시의회 의장, 김미정 전북도 일자리정책관 외에 상공회의소, 국가식품클

러스터 입주기업협의회,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 등 노사민정 및 컨설팅 관계자가 함께 참여해 상생형 일자리 모델 구축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노사발전재단은 시에 지역일자리 모델개발을 위한 컨설팅을 시행하고 지역 일자리 모델 개발 및 사업장 발굴을 지원한다. 시는 이를 토대로 원광대학교와 국

가식품클러스터를 연계한 청년 일자리 모델 개발 컨설팅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현율 시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국가식품클러스터와 연계한 일자리 창출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노사민정을 중심으로 양질의 일자리 모델을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익산=장인천 기자

익산 탐마루 수박, 도내 첫 출하

익산시(시장 정현율)는 지난 15일 용안면 농가의 첫 출하를 시작으로 이번 주부터 탐마루 수박이 본격적으로 출하된다고 23일 밝혔다. 탐마루 수박은 올해 1월에 정식한 1기작 수박으로 도내에서 가장 먼저 출하된다. 이를 시작으로 정음, 고창, 부안, 진안 순으로 출하된다. 특히 탐마루 수박은 당도 11브릭스(Brix) 이상 상품만 엄선해 왔다. 농협 하나마트 등 대형마트로 출하되고 있다. 그동안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수박 명품화 단지를 조성하고 있다.

전열선 및 자동온도 조절장치 339동, 보온덮개 피복 233동, 자동개폐기 1,200대, 토양개량제, 관수·관비 시스템, 토양환경 측정장치 등을 지원해 수박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왔다. 올해는 1억 2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수박생산기술 시범단지 육성하고 이곳에서 생산된 고품질 수박을 작년에 이어 일본에 수출할 계획이다. 또한 전북농업기술원 수박시험장과 연계해 새로 개발된 수박덮개, 반침대를 활용한 시범사업을 추진해 왔다. 여름철 2기작 씨 없는 수박 품질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익산 탐마루 수박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꾸준한 현장 기술 지도를 통해 타 지역과 차별화된 고품질 수박을 생산하고 가격 경쟁력을 제고시켜 익산 수박농가 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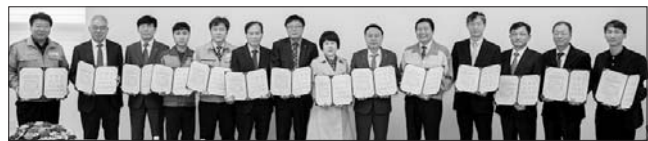
득층에 이바지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익산 수박 재배면적은 183ha로 망성, 용안, 용동, 왕궁 등에서 주로 재배되고 있다. /익산=장양원 기자

익산시, 전북도·전건협 등과 지역 건설사업장 대표 간담회

익산시(시장 정현율)가 23일 전라북도(도지사 송하진),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라북도회(회장 김태경), 지역 내 대형 건설사업장 대표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를 통해 시는 지역 업체 참여 확대 및 우수업체 홍보하고 있다. 지역 인력과 자재, 장비 사용 등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더불어 시는 건전한 지역건설업 운영을 위해 건설현장 불법하도급과 체불금 등 건설산업 기본법 준수여부 및 지역 하도급률, 자재사용률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김용조 도시개발과장은 "철저된 지역경제로 인해 익산시 전 부서가 지역 업체를 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역의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력을 모색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익산시는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역 업체 수주 확대 및 자재 우선구매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 /익산=장인천 기자

군산시, 관내 입주기업들과 고용창출 제2차 협약체결

경제위기 극복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 군산시가 관내 기업체들과 소통과 협력을 통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23일 군산자유무역지역 및 국가산업단지경영자협의회 소속사 7개 업체와 고용창출 제2차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군산시를 비롯해 유관기관인 고용노동부 군산지청, 군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한국산업단지공단전북지역본부, (사)캠텍종합기술원도 최선의 기업환경조성으로 행정적 지원에 적극 협조할 방침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참여기업체는 고용창출에 따라 받게 되는 인센티브로 ▲기업 성장지원지원금 ▲컨설팅 지원 ▲노사화합 프로그램 운영·지원 ▲인력수급 및 지역고용촉진 지원금 지원 등을 받게 된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어려운 기업 상황 속에서도 신규 고용창출을 위해 솔선수범 해주시는 기업체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강임준 군산시장, 장마철 주요시설 안전특별점검

더불어 쾌적한 안전도시 군산시가 장마철을 대비해 주요시설에 대한 점검 등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이상기후로 인한 집중호우 및 태풍 발생에 따른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지난 3월부터 경포천 배수펌프장을 비롯한 우수저류조, 우수지, 배수갑문 등에 대한 안전특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일제점검에서는 담당공무원, 한국전기안전공사, 기계설비 전문업체 등과

함동으로 펌프작동 상태, 배전반, 스크린과 제진기, 우수지 등의 정비 상태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22일 강임준 시장은 배수펌프장 현황에 대해 보고받고, 배수펌프, 수문 등 작동 상태를 직접 점검했다. 점검과정에서 나타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5월 말까지 보수 보강을 마무리해 우기철 배수펌프장이 원활히 가동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자연 인한 피해



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문화가 있는 날' 입점리 고분전시관 체험

익산시, 오늘 진행

익산시(시장 정현율)가 24일 문화가 있는 날을 맞아 옹포 입점리 고분전시관에서 열린다. '문화재 옹포입점리 문화 맛봄'을 주제로 공연과 어우러진 체험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백제 귀족과 지배층의 고분 양식인 굴식돌방무덤, 백제의 수준 높은 장인 정신을 보여주고 있다. 금동 관모와 금동신발 등이 발견된 입점리고분군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재인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기획됐다. 주요 행사는 '봄의 소리'에 취하다'를 주제로 한 오키리나 공연과 봄꽃 왕관, 돌도끼, 문양절편 등을 만들어보는 '봄 문화를 입다' 체험 프로그램이다. 또한 입점리 고분군을 산책하고 있다. 자연식문화체험을 통해 자연의 봄을 맞보는 시간도 갖는다. 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잘 알려지지 않은 옹포 입점리고분군과 전시관이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에게 홍보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함라산 자락에 있는 입점리고분전시관(<http://www.iksan.go.kr/ipjoni>)은 백제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역사문화교육장으로 입점리고분과 옹포리고분군에서 출토된 100여점의 유물을 전시하고 있다. /익산=장인천 기자

익산시, 국가식품클러스터 정주환경 개선방안 모색

익산시(시장 정현율)는 23일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에서 입주기업 및 주거용지 소유자 등과 근로자들의 정주환경 조성과 편의 증진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현재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에는 지원센터 및 입주기업 등에서 600여명의 근로자들이 근무하고 있어 대부분의 입주기업들이 식당, 게스트하우스, 편의점 등 근로여건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이에 따라 익산시는 입주기업 및 주거용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근로여건 개선과 정주환경 조성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 시 관계자는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의 정주환경 조성과 관련된 요구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의견들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며 더불어 "주거용지 소유자들이 빠른 시일 내에 착공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는 2017년 12월 준공 이후 24개 기업이 공장을 준공해 운영 중이며, 4개 기업은 공사 중이다. /익산=장양원 기자

군산시, 농식품부 식량작물 육성 공모사업 선정

군산시 관내 경영체 2개소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2019년 잡곡분야 식량작물공공 경영체육성 시설 장비 지원 공모사업'에 신청해 선정됐다. 시 농업기술센터 따르면 공모사업에 신청한 케어팜농조합법인과 대성농축산(주)는 국비와 도비를 이렇게 지원 받았다. 국비 4억3,550만원, 도비 1억450만원 등 총 5억4,000만원의 지원을 받았다. 시비와 자부담을 포함해 케어팜농조합법인 4억8,100만원, 대성농축산(주) 3억9,000만원의 사업비로 육성 및 운영할 수 있게 됐다. 군산시는 그동안 2개 경영체에 품바인, 트랙터, 파종기 등을 지원한 바 있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과 연계해 경영체 참여 농가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병래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식량작물공공(들녘)경영체를 지속적으로 확대·육성할 계획"이라며 "기존 쌀 중심에서 밭 식량작물까지 확대해 안정적인 생산여건 조성 및 자급률 제고에 공헌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우리가족 면역을 생각한 NK프로젝트

N·1

엔·원

신학 공동연구 프로젝트

NK 프로젝트 N·1

연세대학교 임상영양연구소 이종호교수 연구팀
고려대학교 식품공학과 이명원교수 연구팀

특허받은 유산균으로 만든 기능성 발효유

NK프로젝트 N·1

• nF1 + 카제이균 + 비피더스 유산균 함유

N·1이 NK세포에 주목합니다.

푸르밀 NK프로젝트 홍보대사 하지원